

<八域歌>의 문학적 특징과 의의

김동규*

차 례

1. 서론
2. 작품 창작의 토대와 작가 내내석
3. 세부 소재 선정과 표현 방식
4. 후기 가사의 흐름과 <八域歌>
5. 결론

| 국문초록 |

본고의 목적은 기왕의 실용서와 구별되는 <八域歌>의 문학적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간 <八域歌>에 대해서는 《擇里志》 등 당대에 편찬된 실용서와의 관련성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八域歌>에는 《擇里志》의 비판적 시각이 대폭 축소되어 있으며, 사회적 입지를 잃어간 19세기 향촌사족으로서 작가의 부정적 심경이 숨겨져 있어 그 특징과 의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八域歌>는 기행가사의 형식을 취해 조선 八域의 명승과 사적을 소개했다. 그런데 작품속 화자의 기행은 실재가 아니기에, 명승에 대한 견문은 개략적인 서술에 그치며 그 감상은 유명 한시를 삽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반면 <八域歌>는 지역 사적에 대해서는 작가의 상상력과 문학적 장치를 동원하여 해당 소재를 문학적으로 구성하여 상세하게 소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八域歌>는 忠節의 윤리를 실천한 사족 인물의 사적에 큰 비중을 할애했다. 출사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실현하려는 포부를 가졌던 작가의 생애를 고려할 때, 이는 작가가 품었던 이상적인 사족의 표상에 주목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八域歌>의 작가 의식은 18세기 이래로 변화하는 향촌사회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서 창작된 향촌사족 가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작가는 향촌사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사 작품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八域歌>는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당대인들이 관심을 가진 만한 국토 지리 정보라는 소재를 동원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보태어 향유자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감행했다. 이처럼 이상과 어긋난 삶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취한 형식상의 새로움에서 동시대에 지어진 여타 실용서나 향촌사족 가사와 구별되는 <八域歌>의 문학사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핵심어 : <八域歌>, 내내석, 가사, 향촌사족, 19세기, 《擇里志》

1. 서론

<八域歌>는 조선 八域의 인문·자연지리를 노래한 가사 작품으로, 19세기 전반 전라도 남원의 사족 愚齋 羅乃碩(생몰년 미상)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당대의 일반적인 지리 정보 기술 방식인 誌가 아닌 가사의 형식을 택한 점이 독특하다. 형식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국토는 국민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국토에 대한 작품 속 시각은 우리 삶에 대한 작가의 성찰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八域歌>에 대한 기존 논의는 작품이 지리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했다. 박준규는 작품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면서, 작품의 중심 부분이 조선 팔도의 지리 형세와 유람지의 사적을 노래했으며 국문학사상 이만한 ‘實利文學’이 드물다고 평가했다.¹⁾ 최강현은 한국 기행문학의 흐름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 작품이 ‘교양 교육’을 목적으로 창작된 ‘교재’의 성격을 가졌다고 서술했다.²⁾ 그리고 <八域歌>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을 시도한 노규호 역시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이 작품을 교양 교육을 위한 ‘교본성 가사’로 분류하고 작품의 내용과 표현적 특질을 분석했다.³⁾ <八域歌>를 근대 이행기에

1) 박준규, 「八域歌에 대하여」, 『한국어문학』 1, 한국어문학회, 1965.

2) 최강현 『韓國紀行文學研究』, 일지사, 1982.

3) <八域歌>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을 시도한 노규호의 연구 결과물은 총 3종이다. 먼저 ①

지리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에 의해 창작된 지리가사로 분류하고, ‘종합지리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파악한 조동일의 서술 역시 이러한 연구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⁴⁾

이상의 논의는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고증함으로써 본격적인 작품론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실학이 융성했던 조선 후기 학문적 동향과 관련하여 작품의 성격을 일면 파악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작품과 당대에 편찬된 여타 실용서 간의 관련성에 주목한 결과, 기왕의 실용서와 구별되는 <八域歌>만의 특징이나 그 시가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작가가 기존 실용서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 까닭은 무엇이며 이는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한 성찰과 그 문학적 의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본고는 기왕의 실용서와 구별되는 한 편의 새로운 문학 작품으로서 <八域歌>가 가진 특징과 의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을 재고하고, 작품에 나타난 19세기 향촌사족으로서 작가 나내석의 처지를 살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국토 지리 정보 가운데 <八域歌>가 특히 주목한 소재인 명승과 사적을 중심으로, 작품이 이들 소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

노규호, 「‘八域歌’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에서 이본 검토, 작자와 창작연대 추정, 내용 및 형식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② 노규호, 『論註 八域歌』, 민속원, 1996에서는 ①과 함께 작품의 역주본과 영인본을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③ 노규호, 「朝鮮 後期 教本性 歌辭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에서는 연구자가 교본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한 조선 후기 가사 작품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윤리 교육형, 교양 교육형, 농가 영농 교육형, 종교 교리 교육형으로 유형화했다. 그리고 <八域歌>를 교양 교육형 가사 유형의 대표작으로 분류하고 작품의 내용 및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 논했다.

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제4판), 지신산업사, 2005, 365~366면. 이상에서 소개한 연구 외에 최두식, 『韓國 詠史文學研究』, 태학사, 1987에서 한국 역사문학의 흐름을 서술하는 자리에서 <八域歌>에 대해 논했다. 이 연구는 작품의 내용을 행선지 별로 정리하고, 그에 반영된 작가 의식을 반외세, 민족 자존, 土類 의식으로 분석했다.

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가사문학사의 흐름 위에서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재평가한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당대의 학문적 경향과 관련 하여 다소 막연하게 파악되었던 <八域歌>의 특징과 가치를 보다 구체적이고 문학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고, 변화하는 향촌사회 현실에 대응하는 19세기 가사 문학의 일면모를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작품 창작의 토대와 작가 나내석

1) 기행가사의 전통 및 《擇里志》와 관련성 재고

본격적인 작품 연구를 위한 <八域歌>의 이본, 작가, 창작 시기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노규호에 의해 이루어졌다.⁵⁾ 그는 <八域歌>의 현전 이본 4종을 대비·검토하여 <八域歌>의 이본이 두 계열로 나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곧 이돈주, 진동혁 소장본 계열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 덧붙인 내용과 오류를 바로 잡은 흔적이 보이는 오경석, 권영철 소장본 계열이 내용이 충실한 선본임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는 <八域歌>의 작가에 대해서는 자료에 기재된 기록을 근거로 전라도 남원 지역에 거주한 인물 ‘愚齋 羅乃碩’을 지목했다. 작품에 《擇里志》, 《海東樂府》 등 한문학 작품의 내용이 반영된 점, 출사에 대한 화자의 미련이 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작가는 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족층의 인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집이나 여타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달하여 두드러진 족적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노규호, 앞의 책, 21~43면에서 학계에 소개된 <八域歌>의 이본 4종을 소개하고 작가를 추정했다. 노규호는 <八域歌>의 각 이본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느 것이 원본인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오경석 소장본이 내용이 가장 충실한 最善本임을 밝히고 이 자료의 영인본과 역주본을 논저에 수록했다. 한편 작가를 추정할 근거가 된 기록은 진동혁 소장본의 ‘龍城土人愚齋之撰(‘龍城’은 남원의 별칭, 권영철 소장본의 ‘南原羅愚齋所述, ‘愚齋羅乃碩’이다.

한편 노규호는 각 이본에 성립 연도로 추정되는 간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것이 원본인지 실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지만으로 작품의 창작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창작연대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 속 시어들을 함께 검토하여 <八域歌>의 창작 시기를 1834년(순조34)~1850년(철종1) 사이로 추정했다.⁶⁾ 요컨대 <八域歌>는 19세기 전반 전라도 남원에 거주하였으며 문학적 소양이 있었으나 현달하지 못한 향촌사족 나내석이 창작한 가사 작품인 것이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그 주요한 특징으로 꼽은 것은 이 작품이 기행가사의 형식을 취해 국토 지리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李重煥(1690~1752)의 《擇里志》에서 가져온 것이 많다는 점이다. 먼저 <八域歌>는 ‘-歌’를 표방한 작품답게 ‘서사-본사-결사’로 이루어진 가사의 구성 방식을 취했다. 작품의 서사-본사-결사는 각각 ‘기행의 동기와 행장-목적지에서의 견문과 감상-귀환 이후의 정감’을 노래하고 있어 전형적인 기행가사의 구성 방식을 따랐다. 이 가운데 2음보 1구를 기준으로 서사가 10구, 결사가 18구를 차지하며, 八域의 인문·자연지리 정보를 다룬 본사가 매우 길어지면서 작품 전체의 분량이 총 3,000여 구로 대폭 확대되었다.⁷⁾

그런데 <八域歌>의 경우 작가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원과 그 인근을 제외하고는 작품에 등장하는 광범위한 전국 기행이 실제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정이 실제 기행 코스라기에는 너무 무분별하며, 작품의 내용 가운데 당대에 널리 읽혔던 다른 저술을 옮겨 쓴 것이 자주 발견된다는 점, 오경석 소장본의 표지에 ‘臥遊江山’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⁸⁾ 다만 작가는 여타 저술과 문학

6) 노규호, 앞의 책, 43~46면. 창작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가 된 시어들은 ‘端宗’, ‘英宗’, ‘正宗’ 등 특정 시기에 사용된 고유명사들이다.

7) <八域歌>는 4음보의 율격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에서 어긋나는 양상을 자주 보인다. 특히 한시나 한문 기록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여 2음보 1구 혹은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작품의 분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8) 노규호, 앞의 책, 48~51면.

작품을 통해 섭렵한 국토 지리 정보를 국문 시가에 담아내기 위해, 기왕에 특정 지역에 대한 견문과 감상을 노래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던 기행가사의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인에게 익숙한 기행가사 형식을 취함으로써,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향유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전달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八域歌>는 작가의 실제 기행 체험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 면에서 기왕의 기행가사와 차이를 보인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 장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八域歌>의 본사는 ‘함경도-평안도-황해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경기도’ 순으로 전개된다(본사의 구체적인 전개 순서는 [별지] 참조).⁹⁾ 이는 함경도와 평안도의 순서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擇里志》 ‘八道論’의 전개 순서와 일치하여 <八域歌>가 《擇里志》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擇里志》는 ‘八道論’ 서두에 ‘序說’을 두고, ‘白頭山’으로부터 ‘朝鮮山脈’이 시작된다고 서술하며 조선 팔도의 개요를 소개했다. 그리고 소재목을 바꾸어 ‘平安道’, ‘咸境道’, ‘黃海道’… 순으로 ‘八道論’을 전개했다. <八域歌> 역시 이러한 《擇里志》 ‘八道論 序說’의 서술을 반영하여 본사에서 ‘白頭山’을 화자의 첫 번째 기행지로 배치하고, 이곳으로부터 ‘東國山脈’이 시작된다고 노래했다.

하지만 <八域歌>의 경우 ‘白頭山’ 단락 다음에 ‘會寧’을 비롯한 함경도의 고을을 배치하여 평안도가 아닌 함경도를 시작으로 본사를 전개했다. 이처럼 <八域歌>가 《擇里志》 ‘八道論’의 순서를 일부 변용한 것은 이 작품이 기행가사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곧 작가는 화자가 백두산을 기행한 다음 백두산이 소재한 함경도의 인근 고을을 기행하는 순으로 작품을 전개하는 것이 기행가사의 전개상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八域歌>는 《擇里志》의 구성과 내용을 참고하되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9) 八域 가운데 전라도, 경상도가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는 두 지역이 작가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이며 조선시대에 인구가 밀집되어 도시와 문화가 번성했던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있어 작품 논의에서 이러한 변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八域歌>는 각 域의 처음이나 끝부분, 혹은 주요 고을을 다룬 부분에서 해당 지역의 지세와 생리를 간략하게 언급하여 향유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내용 요소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擇里志》의 것을 반영한 것이 많다.¹⁰⁾ 그러나 《擇里志》가 지세와 생리를 기준으로 특정 지역이 사대부의 주거지로 적합한가를 평가한 것과 달리, <八域歌>의 개괄적인 서술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발견하기 어렵다.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지리지 저술을 통해 당대 조선 사회의 병폐를 진단한 이증환의 문제의식을 <八域歌>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작품에서 비판적 지식인의 시각이 약화된 사실은 ‘擇里’가 아닌 가치중립적 성격의 ‘八域歌’를 작품의 제목으로 정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¹⁾

<八域歌>는 비판적 지식인의 시각을 대폭 소거했을 뿐 아니라, 《擇里志》와 동일한 지역을 다루면서도 그와 전혀 다른 정보를 소개하기도 한다. 다음 강원도 ‘寧越’ 단락을 통해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한다.

寧越(영월) 向(향)하야 觀風樓(관풍루) 梅花樓(매화루) 올느보니
依然(의연)흔 지최 居然(거연)이 싱각하니
端宗 大王(단종 대왕) 이 골의 遜位(손위)하야
月白 風清(월백 청풍)하면 이 樓(누)의 올느서
실패 날닌 玉笛(옥적) 소리

10) 노규호, 앞의 책, 74~82면; 앞의 논문 ③, 73~87면에서 <八域歌>와 《擇里志》의 내용 가운데 유사한 것을 비교했다. 그는 <八域歌>가 《擇里志》를 모본으로 하여 지어졌으며, 《擇里志》의 내용을 좀 더 함축적이고 암송하기 쉽도록 율문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擇里志》가 당대 사대부들의 필수 교양서였음을 고려할 때, <八域歌> 역시 역사와 지리 교육을 위한 교본으로서 지어진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11) 이증환의 《擇里志》 외에도 조선 후기에 지어진 허목의 <地乘>, 이익의 <生財>, 이규경의 <八路利病辨證說> 등이 비판적 지식인의 입장에서 조선 팔도의 경제 생활과 그에 대한 의론을 전개한 바 있다. 김대중, 「조선 팔도 식화지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77,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21에서 이들 작품을 계보화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비교하여 상세하게 논의했다.

遠近(원근)의 듣는 스람 뉘 아이 落淚(낙루)흐며

(…)

陪行都事(배행도사) 淸泠浦(청령포) 실픈 노리 曰(왈)

千萬里(천만리) 머드먼 길 고온 임 이별하고

네 마암 들디 업서 니가의 아자시니

저 물도 니 맘 갖다 밤낫설 울고 가네¹²⁾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八域歌>의 ‘寧越’ 단락은 端宗(재위 1452~1455)이 해당 지역에 유배되었을 당시의 사적을 노래했다. 화자는 ‘端宗 大王’과 관련된 영월 지역의 명승 ‘觀風樓’, ‘梅花樓’에 올라 단종이 유배객의 처지로 누각에서 ‘玉笛’을 불었던 일화를 상기했다. 이때 ‘실피’, ‘落淚’와 같은 시어를 활용하여, 억울하게 유배당한 단종과 그런 그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슬픈 감정을 작품에 담았다. 사적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에서 느낄 수 있는 정감을 다룬 것이다. 특히 이 단락은 단종에게 사약을 받들고 간 ‘陪行都事’ 王邦淵(생몰년 미상)의 시조를 인용했다. 이 작품은 단종[고온 임]에 대한 충심과는 반대로 그에게 사약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작가의 괴로움과 슬픔을 노래한 것이다. 화자는 이 작품을 두고 ‘실픈 노리’라고 지칭하고 이를 인용함으로써 슬픔의 정서를 극대화하여 단종의 사적을 소개했다.¹³⁾

이처럼 <八域歌>의 ‘寧越’ 단락이 해당 지역 자체보다는 지역 관련 인물의 사적을 주요하게 다룬 것은 《擇里志》의 ‘寧越’ 부분과 비교하면 특징적이다.

계곡물은 영월의 상동(上東)을 경유하는데 영월읍에 들어서기에 앞서 임계역(臨溪) 서쪽 산기슭의 남쪽에 있는 정선(旌善) 여량역(餘糧驛) 마을을 지난다. 우

12) 본고에 인용한 <八域歌>의 원문은 노규호, 앞의 책에 수록된 오경석 소장본을 따랐다. 작품 원문은 국한문혼용체로 행의 구분 없이 필사되어 있다. 본고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 자어의 우리말 음을 괄호 속에 표기하고,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작품의 시행을 구분하여 인용했다.

13) <八域歌>는 이처럼 해당 지역과 관련된 인물의 사적을 소개한 다음, 그 말미에 해당 사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정서를 노래한 시문학 작품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통수가 북쪽에서 흘러와서 여량역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른다. 강물 양쪽 언덕이 상당히 넓고, 언덕 위의 큰 소나무와 흰 모래밭이 맑은 물살과 어우러져 참으로 은자가 살 만하다. 논이 없어 유감이기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풍족하여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계곡물이 영월읍 동쪽에 이르면 상동의 물과 만나고, 서쪽으로 조금 흘러가서 주천강(酒泉江)과 만난다. 두 강 사이에는 단종의 능인 장릉(莊陵)이 있다. 숙종 임금께서는 병자년에 단종의 위호를 추복하고 왕릉을 개봉하도록 하셨다. 또 이 일에 앞서 장릉 부근에 육신묘(六臣廟)를 건립하게 하였으니 대단히 융숭한 조치이다.¹⁴⁾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擇里志》는 하천의 흐름을 중심으로 영월의 지세를 소개하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영월이 은자가 살 만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저자는 영월 주민들의 생리와 해당 지역의 사적지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때 단종 관련 사적지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역사적 일화는 생략하고, 그것이 후대에 정비되고 건립된 계기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요컨대 《擇里志》는 해당 지역에 대한 특징적인 정보를 개괄하여 소개하고, 이곳이 사대부의 주거지로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이러한 《擇里志》의 서술은 영월 지역이 단종 사적을 소개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기능하는 <八域歌>와 차이가 있다. 이처럼 《擇里志》와 내용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八域歌>의 세부 단락들에서 기왕의 실용서와 차별화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자 한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작품 논의에서 기존 실용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되, 그와 구별되는 <八域歌>의 개성적 면모에 주목하고 그 의의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4) “溪由寧越上東，入邑前，臨溪西麓南爲旌善餘糧驛村。于筒之水自北繞村，而兩岸頗敞，岸上長松白沙，掩映清波，眞隱者所居。但恨無水田，然村民皆饒給自足。溪到寧越邑東，與上東水合，又稍西與酒泉江合。兩江之內，有端宗莊陵。肅廟於丙子，追復位，改封陵。且前建六臣廟於傍，甚盛舉也。”(이중환, 《擇里志》) 자료의 번역문과 원문은 각각 이중환 지음, 안대화·이승용 외 옮김, 『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 104면과 415면에서 인용했다.

2) 작품에 나타난 19세기 향촌사족 나내석의 처지

<八域歌>의 문학적 특징과 의의를 재고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로 작가적 맥락을 들 수 있다. <八域歌>의 작가 나내석에 대해서는 이름과 출신 지역 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가 전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작품 논의에서 작가적 맥락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며, 당대의 학문적 동향과 관련하여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런데 <八域歌>의 서사와 결사, 그리고 본사의 남원 단락(작가의 거주지)에는 본인의 생애와 처지에 대한 작가의 심경이 술회되어 있어 작품 창작 당시 작가의 처지와 작품의 창작 동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작품 첫머리인 서사 단락에서 八域 기행의 동기와 행장을 노래한 대목이다.

青年素志(청년소지)는 塵臼中(진구중) 日月(일월)이 無情(무정)하고
 白首浪跡(백수낭적)은 靈區上(영구상) 山水(산수)에 有意(유의)로다
 舞雩(무운)의 春服(춘복) 빌고 陋巷(누향)의 瓢子(표자) 어더
 仁山智水(인산지수) 보라하고 白頭山(백두산) 츠즈가니

화자는 작품 서두에서 과거와 현재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다. 그리하여 둘을 ‘青年’과 ‘白首’로 대비하고, 각각이 지향하는 바 역시 ‘塵臼’와 ‘靈區’로 대비하여 제시했다. ‘青年’이었던 과거의 화자는 ‘塵臼’ 곧 속세에서의 성취에 뜻을 두었다. 하지만 세월은 ‘無情’하게 흘러 화자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어느덧 ‘白首’의 노인이 되었다. 노령에 이른 화자는 이제 속세를 초월한 신선 세계, 구체적으로는 ‘山水’로 대표되는 자연에 뜻을 두었다. 그리하여 ‘春服’과 ‘瓢子’의 단출한 행장을 꾸려 함경도의 ‘白頭山’을 시작으로 八域의 ‘仁山智水’ 기행에 나섰다.

이처럼 화자의 기행 계기를 요약하여 제시한 서사 단락에서 작가 나내석의 생애와 그가 품었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塵臼’ 곧 속세에서의 일이 사대부의 시가 작품에서 주로 현실 정치 참여와 관련한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화자의 ‘靑年素志’는 출사에 대한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곧 나내석은 조선시대 여느 사족들처럼 출사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본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바람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는 끝내 ‘白首’의 노인이 되어 차선으로 八域의 지리 정보를 소개하는 가사 창작에 나섰다.

작가는 서사에서 ‘山水’를 거론하며 속세에 무관심하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八域歌>의 본사는 신하로서 忠節의 윤리를 실천한 인물의 사적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자연으로 물러난 이들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 이들의 행적에 주목한 작가의 태도에서 그가 ‘塵白中’의 ‘素志’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이 어긋난 상황은 작가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는 <八域歌>의 본사에 산발적으로 표현되었다. 다음 (㉠)은 진라도 ‘南原’ 단락 앞에 등장하는 부분이며, (㉡)은 진라도 ‘智異山’ 단락의 청학동 부분이다.

(㉠) 여귀 귀경호고 脚力(각력)이 衰敗(쇠패)하야
遑遑(황황)이 還栖(환서)하니
淸溪上(청계상) 碧山中(벽산중)의 數間 精舍(수간 정사)
狂風(광풍)의 傾頽(경퇴)하야 重創(중창)키 어렵도다
世上事(세상사) 다 바리고 西道勝地(서도승지) 귀경초로
南原 廣寒樓(남원 광한루) 올라보니

(㉡) 靑鶴洞(청학동) 츠지라고 緩步(완보)로 徐行(서행)하야
天王峯(천왕봉) 올라 보니 靑鶴(청학)이 一去不廻廻(일거불과회)라

(㉠)에서 화자는 ‘脚力’이 늙어서 약해졌다[衰敗]고 표현하여 늙어버린 현실을 자각했다. 이에 八域 기행을 중단하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 보니 화자의 거처[數間 精舍]는 ‘傾頽’하여 ‘重創’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이처럼 제 구

실을 하지 못하고 퇴락한 집의 이미지는 사족의 정체성을 구현하지 못한 채 나
이 들어 버린 작가의 모습과 겹친다. 그리하여 이 대목에서는 쓸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결국 화자는 서사에서처럼 다시 한번 ‘世上事’ 일체를 ‘다 바리고’ ‘勝
地 귀경’에 나선다. 이로써 화자의 ‘勝地 귀경’이 작가가 ‘塵臼中’의 ‘素志’를 실
현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선으로 택한 도피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勝地 귀경’하는 삶이 작가가 진정으로 원한 것이 아니기에 그가 잊고자 했
던 번민은 수시로 다시 떠오른다. (L)에서 화자는 지리산의 정상이자 명승인
‘天王峯’에 오른다. 하지만 화자는 지리산 일대의 절경이 모두 내려다보이는 그
곳에서 ‘靑鶴’이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읊조렸다[一去不廻]. 여기서
‘靑鶴’은 마찬가지로 ‘靑’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서사의 ‘靑年’을 연상시킨다. 곧
화자는 젊은 시절 가졌던 출사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다
시금 쓸쓸함에 젖은 것이다.

결사에서 귀환 이후의 정감을 노래한 데서도 이러한 감정은 여전히 해소되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三十七官(삼십칠관) 발분 後(후)의 徐徐(서서)이 還榭(환서)호야
所聞 所見(소문 소견) 一一爲(일일위) 記錄(기록)호야
名之 曰(명지 왈) 八域歌(팔역가)라 하니
曠浪而然歟(광랑이연여) 抑鬱而然歟(억울이연여)
(…)

어와 너 일이야

苦樂(고락)이 有分(유분)키늘 安分(안분)치 못하니요

出入(출입) 有路(유로)키늘 小路(소로)로 들미로다

濂溪翁(염계옹) 읊은 시

安分身無辱(안분신무욕)이요 知幾心自閑(지기심자한)은

願吟(원음) 百誦(백송)호야 以終餘年(이종여년) 호오리라

화자는 돌아온 뒤에 ‘所聞 所見’을 ‘記錄’하여 이 작품을 짓고 제목을 ‘八域歌’라 한다고 했다. 이는 작품의 제목과 동일하여 작품 속 화자가 작가와 동일 인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지은 노래를 두고 뜻이 넓고 밝은가[曠朗], 혹은 분하고 답답한가[抑鬱]라고 자문했다. 八域의 방대한 지리 정보를 한 편의 노래 속에 담아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한편, 귀환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정적인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작가는 출사를 통해 사족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실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씁쓸함을 잊고자 가사 창작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감정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抑鬱’한 심경을 작품에 직접적으로 표출할 정도로 그 강도가 강해진 것이다.

화자가 이처럼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느낀 이유는 작품의 마지막 대목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화자는 사람마다 분수와 길[分, 路]이 정해져 있는데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본인의 삶을 총평했다.¹⁵⁾ 이때 ‘分’과 ‘路’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적 사고에서 화자가 ‘靑年素志’를 이루지 못한 것이 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기에 화자는 ‘抑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어서 화자는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형편을 알리[安分身無辱 知幾心自閑]는 성현의 시를 곱씹으면서 ‘餘年’을 마치겠다고 결심하며 작품을 마무리했다. 이때 이 시를 끊임 없이 되뇌었다[願吟 百誦]고 한 데서 역설적으로 화자가 현재의 처지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작가는 작품을 시작하고 끝맺는 자리는 물론 지리 정보를 전달하는 가운데서도 본인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인 심경을 곳곳에서 노출했다. 이러한 대목에 이르면, 이 작품이 기존에 논의되었듯이 교양 교육이나 지식 전달만을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대목을 두고 ‘朝鮮朝 선비들의 陳腐한 常套的 表現’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¹⁶⁾ 하지만 나내석을 포함한 19세기 향촌사족 일반의 처지를

15) 작가가 자신의 字에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愚’자를 사용한 이유를 이러한 작가의 생애에 비추어 이해할 수도 있다.

고려하면 이러한 분석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주지하듯이 18세기 후반부터 중앙 정계와 향촌 사회에서 사족의 사회적 입지는 점차 좁아졌다.¹⁷⁾ 정과 간의 주도권 다툼이 예송 논쟁으로 구체화된 17세기부터 이미 조선의 중앙 정계에서는 능력이 아닌 문벌이 인재 기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¹⁸⁾ 이처럼 불합리한 정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당평책을 표방했던 英·正祖 시기가 끝난 19세기부터는 노론의 일당독재 체제가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노론 유력 가문에 속하지 않은 인물이 출사하여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사라지다시피 했다. 게다가 노론 정권이 향촌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들이 파견한 수령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족의 영향력은 그들의 생활 터전인 향촌에서도 약화되었다.

이에 향촌사족들은 서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그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문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은 문학 활동에서도 사회적 위상과 입지를 전과 같이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벌였다. 18세기 이래로 향유된 향촌사족 가사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인 향촌을 예찬하거나, 그들이 내면화하고 공유했던 유교 이념을 노래한 작품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19세기 조선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슬회는 그가 처한 실제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결코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리 정보와 이질적인 개인적인 소회를 작품에서 굳이 언급한 데서, 작가의 처지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왕의 실용서와 구별되는 새로운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중요한 동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곧 <八域歌>는 사족으로서 작가가 품었던 이상과 현실이 어긋나는 상황에 대한 진지한

16) 노규호, 앞의 책, 52면.

17)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김인걸, 『조선 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7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사족의 지배력이 약화되어 간 상황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18) 현종 대 문과 급제자의 관료에 가문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실은 나영훈, 「조선 현종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朝鮮時代史學報』 94, 조선시대사학회, 2020에서 상세하게 논의했다.

문제의식 위에서 탄생한 작품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재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작품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3. 세부 소재 선정과 형상화 방식

<八域歌>가 학계에 처음 소개될 때 언급되었듯이, 본사의 각 단락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크게 해당 지역의 △ 지세·생리, △ 명승, △ 사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지세·생리는 《擇里志》의 내용을 요약·반영하여 개괄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으며, ‘명승’과 ‘사적’에 대한 내용이 본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본사 가운데 해당 소재를 비중 있게 상술했던 것을 가리키는 [별지]의 ㉠ 표시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명승과 사적에 해당하는 단락의 내용 및 형식상 특징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명승의 소개와 유명 한시 삽입

<八域歌>는 八域 각지의 이름난 명승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이러한 본사의 내용은 서사에서 화자가 ‘仁山智水’를 언급하며 八域 기행에 나선 것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八域歌>에 소개된 지역 명승은 《新增東國輿地勝覽》, 《擇里志》 등 기왕의 지리지와 다수의 기행문학 작품에서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된 곳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명승지였던 강원도 ‘金剛山’ 단락을 통해 <八域歌>의 명승지 형상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金剛山(금강산) 올느보니 씨마춤 三秋(삼추)라
一萬二千(일만이천) 높픈 峰(봉)은 독마다 눈비시오
八萬九庵(구만구암) 버린 절은 마다 쇠북 소리¹⁹⁾

이 아니 壯觀(장관)인가
 中國人(중국인) 을픈 글의 曰(왈)
 願生高麗國(원생고려국)호야 一見金剛山(일견금강산)은
 일을 두고 이름이요
 仙人(선인) 朱紅大字(주홍대자) 시권 글씨
 山木時臥巖事(산목시와암사)
 頃松奇生趣知(경송기생취지)
 崔孤雲(최고운) 解(해)호 글의
 空山落木日斜時(공산낙목일사시)
 絶頂疎松倒立奇(절정소송도립기)
 長臥廣巖無一事(장와광암무일사)
 半生眞趣少人知(반생진취소인지)는
 이 景(경)을 두고 을품이라
 날 몬져 詩人才士(시인재사) 을픈 글의
 面面風景(면면풍경) 歷歷(역력)히 일너뜨다
 (...)
 緩步(완보)로 니려 萬瀑洞(만폭동) 다다르니
 놀닐 물결 성년 瀑布(폭포) 골마다 옥비시오 낮마다 눈비시라
 面面(면면)이 귀경호고 表訓寺(표훈사) 點心(점심)호고
 長安寺(장안사) 잠을 자고

화자는 금강산 일대의 수많은 명승지에 대한 견문을 ‘一萬二千 嶺峯’, ‘九萬九庵’, ‘壯觀’ 등의 간략한 시어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언급했다. 이들이 가진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지는 않은 것이다. ‘눈빛’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를 풍경 묘사에 동원하기도 했지만, 이는 이어지는 ‘萬瀑洞’ 대목에서 다시 한번 반복됨으로써 참신함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금강산 내에 자리한 ‘表訓寺’, ‘長安寺’는 화자가 식사하고 숙박하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화자의 여정

19) 노규호, 앞의 책에 수록된 오경석 소장본에서 ‘절은’ 다음에 곧바로 ‘마다’가 이어서 나온다. 하지만 이는 문맥상 어색하여, ‘절은’과 ‘마다’ 사이에 본래 있던 시어가 필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에서 이름이 거론될 뿐 적극적인 문학적 형상화의 대상으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견문뿐 아니라 감상에서도 진정한 감동에서 비롯된 찡진함은 발견하기 어렵다. 위에서 금강산의 절경에 대한 화자의 감상은 ‘이 아니 壯觀인가’라는 한 마디 시구에 그치고 있다. 이어서 화자는 최치원을 비롯한 과거 ‘詩人才士’들이 남긴 유명 한시를 삽입하여 본인의 감상을 대신했다.

이상에서 작가가 八域 각지의 유명 명승을 작품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해당 소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는 매우 소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八域歌>는 작가의 실제 유람에 근거한 여타 기행가사와 차이를 보인다. 곧 작품에서 작가가 유람한 명승의 아름다움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그로부터 받은 감동을 절실하게 풀어내고자 하는 작가 의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八域歌>가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 일차적인 이유는 작가가 해당 명승을 유람한 경험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지역을 실제로 보고 느끼지 못했으니 견문이 구체적일 수 없고 진실한 감상을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작품에 언급된 명승들이 오랜 세월 그 위상을 유지하였으며, 해당 명승을 유람한 문인들이 다수의 시편과 유람기를 남긴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을 작가의 경험 부재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기왕의 견문과 감상을 재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안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八域歌>에서 이러한 시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작가의 의도가 해당 명승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곧 작가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승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유명 한시를 작품에서 언급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 것이다.

한편 <八域歌>에서 명승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기 위해 당대에 널리 알려졌던 유명 한시를 삽입한 것은 작품의 문체 및 운율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八域歌>는 국문 시가인 가사를 표방했지만, 八域 각지의 명승과 사적을 소개하면서 별도의 음역이나 풀이 없이 다수의 한시를 원문 그대로 삽입하여 한문 문학과 친연성을 보인다. 이러한 한문 문학과 친연성은 <八域歌>

가 한자어가 다수 사용된 국한문혼용체를 구사하며, 한문 문장에 우리말 토를 단 문체를 자주 구사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체상의 특징으로 인해 <八域歌>의 각 행은 가사의 4음보 율격을 의식하지만 자주 그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中國人~이름이요’에서도 이러한 형식상의 이탈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 시구와 우리말 시구가 뒤섞이면서 음보를 명확하게 구분해가며 작품을 향유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체와 운율상의 특징을 통해 <八域歌>의 작가가 가사의 형식적 전통을 계승하는 데 유의하기보다는, 본인이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내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곧 작품이 어떤 내용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그에 반영된 작가 의식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작업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작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 지역의 사적을 다룬 대목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지역 사적의 재구성과 忠節의 주목

<八域歌>의 화자는 八域의 명승뿐 아니라 사적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두 소재에 대한 언급 횟수는 비슷하지만, [별지]의 ㉠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가는 지역의 사적을 상술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과거 국가의 도읍지였던 지역에서는 해당 국가의 흥망사를, 여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과 관련된 역사 인물의 일화를 상세하게 노래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명승지와 마찬가지로 이들 사적 역시 《新增東國輿地勝覽》, 《擇里志》와 같은 지리지를 비롯하여, 영사악부와 각종 잡기류(雜記)에 소개된 것들이다. <八域歌>는 국가 흥망사와 역사 인물의 일화를 시대순이 아닌 지역별로 재배치하여 작품을 구성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차례로 살펴본다.

(ㄱ)은 전라도 ‘南原’ 단락에서 대방국의 역사를, (ㄴ)은 평안도 ‘平壤’ 단락에서 고조선의 역사를 노래한 대목이다.

(㉠) 帶方古國(대방고국)이라

時起年代(시기연대) 文獻(문헌)이 未詳(미상)토다

龍城誌曰(용성지왈)

帶方方設(대방방설)은 蒼茫於三韓之前(창망어삼한지전)이요

都護之置(도호지치)는 磊落於百濟以後(뇌락어백제이후)라 訶고

綱目曰(강목왈)

(…)

以上(이상) 事績(사적)은 俟後君子(사후군자) 訶오니라

(㉡) 檀君(단군) 千年(천년)은 文獻(문헌)이 無徵(무징)하니

舉大概(거대개) 訶오리라

東方(동방)에 初無君長(초무군장)이라

폴노 옷슬 訶고 나무 열미 밥을 訶야

여름의 섬에 자고 겨울에 궁계 하니

이 일른 九種夷(구종이)라

太白山(태백산) 檀木下(단목하)의 神人(신인)이 下降(하강)하야

平壤(평양)의 卽位(즉위)訶고 國號(국호)을 朝鮮(조선)이라 하니

(㉠)에서 화자는 남원이 ‘帶方古國’의 영토였음을 밝히며 지역사를 소개했다. 그리고 대방국의 개국 시기[時起年代]는 문헌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음을 밝히고, 읍지[龍城誌]를 비롯한 파편적인 기록들을 최대한 수집·인용하여 지역사를 서술하려 애썼다. 그리고 끝으로 본인의 관심을 후대인[後君子]이 이어받아 남원의 지역사를 소상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했다. 이처럼 문헌에 근거하여 정확한 역사 서술을 기하고, 본인이 풀지 못한 지역사의 내력이 훗날이라도 밝혀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태도에서 작가가 지역의 사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사적을 다룬 대목에서는 기존의 저술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을 작가가 직접 창작하여 보태는 양상도 확인된다. (㉡)에서 화자는 문헌을 통해 고증할 수 없는 고조선 건국 이전 선사시대인들[九種夷]의 모습을 묘사했다[폴노

~궁계 하니. 훗날 檀君에서 箕子로 이어지는 역사 시대의 문화 수준을 부각하기 위해 그와 대비되는 선사시대의 원시적인 생활상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이 대목은 앞서 살핀 대목들에서 한문 저술을 인용함으로써 한문 문장에 우리말 토를 다는 식의 문체를 구사한 것과 달리, 문헌에 전하지 않는 내용을 화자가 새로 창작함으로써 순우리말 시어를 대거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기존에 알려진 사적을 소개하면서 해당 소재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양상은 지역 인물의 사적을 다룬 대목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는 지세·생리에 대해 《擇里志》를 인용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명승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유명 한시를 그대로 삽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작가가 지역 인물의 사적을 소개하는 데에 특히 주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강원도 ‘金剛山’ 단락에서 지역 명승을 소개한 데 이어 그곳에 은거했던 麻衣太子(생몰년 미상)의 사적을 형상화한 대목이다.

草衣人(초의인) 사던 터을 歷歷(역력)히 살펴보니
 貞忠 大節(정충 대절)은 白日(백일)이 昭昭(소소)하고
 秋霜(추상)이 凜凜(릉릉)토다
 新羅 末(신라 말) 敬順王(경순왕)이 아달
 亡國(망국)을 當(당)하야 父王(부왕)과 諫(간)한 말삼
 아모썩록 忠臣 義士(충신 의사) 다리고
 百姓(백성)을 收拾(수습)하야 죽기로써 직킬지라
 엇지 춤아 一千年(일천년) 社稷(사직)을
 一朝(일조)의 경선이 남을 주리잇가
 父王(부왕)의 訶는 말씀
 고단코 危殆(위태)하야 勢不當 力不當(세부당 역부당)하니
 엇지타 무죄한 百姓(백성)으로 肝腦塗地(간뇌도지)하랴 하고
 降書(항서)을 高麗國(고려국)의 보니거늘
 저 王子(왕자) 父王(부왕)과 訶직하고
 痛哭(통곡)하야 金剛山(금강산) 춧즈드러

草麻(초마)로 오설 하고 巖阿(암아)로 집을 삼아
百年(백년)을 못츠시어
詩人(시인)의 읊픈 글에 알
山中羅日月(산중라일월)
山外麗天地(산외려천지)는
일을 두고 이름이라 이 아니 慷慨(강개)훈가

화자는 마의태자[草衣人]의 사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인 ‘貞忠 大節’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신라 ‘亡國’ 당시 인물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때 눈에 띄는 것은 마의태자와 ‘敬順王’의 갈등 상황을 설정하고, 두 인물 간의 대화를 구성하여 삽입한 것이다. 이 대화는 앞서 (L)에서 원시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작한 것으로, 주로 순우리말을 사용한 구어체로 이루어졌다[아모쪼록~쥬리잇가]. <八域歌>는 이처럼 지역 인물의 사적을 다루면서 더 큰 실감과 흥미를 유발하고 사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학적 재구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목에서 화자는 ‘痛哭’, ‘慷慨’와 같이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 시어를 내세워 향유자가 마의태자의 감정에 공감하도록 했다. 향유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작품의 내용에 더욱 몰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지리 정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정서를 부각하는 양상은 앞서 강원도 ‘寧越’ 단락에서 단종의 사적을 소개한 데서도 확인한 바 있다. <八域歌>의 이러한 면모는 객관적인 지리 정보를 전달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평론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실용서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곧 <八域歌>는 지역 인물의 사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기존의 실용서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八域歌>가 세부 소재들 가운데서도 특히 지역 인물의 사적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확인했다. 작가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해당 소재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실감과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향유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전략은 마의태자의 사적 외에도 [별지]의 ◎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 인물의 사적을 다룬 대목 대부분에서 두루 확인된다. 그렇다면 작가는 다양한 역사 인물 가운데서도 특히 어떤 유형의 인물에 관심을 가졌을까.

다음 [표]는 <八域歌>에서 예찬의 대상으로서 그 사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인물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예찬 대상 인물 분류

군주		① 세종(백두산, 온양-際會) ② 익조(경흥-天監) ③ 태종(함흥-氣像, 원주, 금천-尊賢) ④ 단종(영월-비극적 생애)
신하	忠勇	① 김종서(백두산, 회령) ② 김응하(중성) ③ 김지대(의성) ④ 처용(울산) ⑤ 김후직(경주) ⑥ 김유신(경주) ⑦ 황창(경주) ⑧ 죽죽(합천) ⑨ 이술원-이우방 부자(거창) ⑩ 나세찬(고성) ⑪ 이순신(노량, 순천) ⑫ 이정란(전주) ⑬ 조현(금산) ⑭ 남연년·오명항(청주)
	節義	① 마의태자(금강산) ② 김주(선산) ③ 길재(봉계촌) ④ 정은(안양) ⑤ 임진왜란 순절자(진주) ⑥ 병자호란 순절자(강도) ⑦ 정몽주(용인) ⑧ 서견(금천)
	기타	① 박엽(중화-知識) ② 김굉필(현풍-聖人の 면모) ③ 송시열(청주-事大)
기타		① 유희춘 부인(마천령·마운령-德) ② 이항복·정충원(북청-知己) ③ 설씨녀(경주-貞烈) ④ 견훤(상주-氣像)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八域歌>에서 예찬 대상으로 그 행적을 가장 많이 소개한 인물 유형은 '신하'로서 '忠勇', '節義'의 덕목을 지닌 인물들이다. 이들은 조선시대 사족 혹은 그에 준하는 지도층 인물들이다. 작가 나내석이 사족 충임을 고려하면, 작가는 八域의 지리 정보를 소개하면서 자신과 동일한 계층에 속한 인물의 사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전란, 망국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

에서도 신하로서 국가와 군주에 대한 忠節을 실천에 옮겨 사회적 책무를 다한 인물이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앞서 <八域歌>의 작가 나내석은 출사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으나 끝내 이를 펼치지 못한 인물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작가의 처지를 고려하면 작가는 국토 지리 정보를 가사로 풀어내면서 본인이 품었던 이상을 실현한 인물의 사적을 주요 소재로 다룬 셈이다.

작품에서 소개한 사족층 인물의 사적이 작가의 이상을 반영한 것임은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경기도 ‘松都(지금의 개성) 단락에서 고려와 조선의 흥망사를 대비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힌 부분이다.

高麗朝(고려조)의 中國 姓氏(중국 성씨) 模倣(모방)하야
班姓(반성) 於八路(여입로)하니 人皆(인개) 有姓(유성)하야
惑以爲(혹이위) 民庶(민서)하고 惑以爲(혹이위) 士大夫(사대부)라
何以爲(하이위) 士大夫(사대부)오
士而行大夫事曰(사이행대부사왈) 士大夫(사대부)라
王公聖賢(왕공성현) 後裔(후예)로 孝悌忠信(효제충신) 業(업)을 습고
禮義廉恥(예의염치) 本(본)을 습아 立紀綱(입기강) 正風俗(정풍속)하니
所以謂(소이위) 士大夫(사대부)라
入我朝(아입조) 命分(명분)이 比麗(비려) 尤明(우명)터라

화자는 ‘高麗朝’에 사람들이 ‘中國 姓氏’를 ‘模倣’하여 아무나 ‘士大夫’를 자처한 역사를 비판적으로 서술했다. 이는 《擇里志》 ‘結論’ 부분에 등장하는 이중환의 서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八域歌>는 《擇里志》에 등장하지 않는 서술을 이어서 덧붙였다. 진정한 ‘士大夫’란 ‘士’이면서 ‘大夫事’를 ‘行’하는 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유학자인 士로서 유교 윤리[孝悌忠信, 禮義廉恥]를 끊임없이 내면화하고, 관직에 나아간 大夫로서 사회의 ‘紀綱’과 ‘風俗’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만 士大夫라고 했다. 이는 작가가 설정한 이상적

인 사족의 표상을 명시한 것으로, 작품에서 사적을 소개한 사족 인물들의 속성과 일치한다.

이상에서 <八城歌>가 국토 지리 정보를 소개하면서, 국가 및 군주와의 관계망 속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 지도층 인사의 사적에 각별한 관심을 표한 것을 확인했다. 작가가 사족으로서 출사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뜻을 품었던 것을 고려하면, 작가는 기왕의 실용서와 구별되는 새로운 문학 작품을 창작하면서 특히 본인이 품은 이상을 실현한 인물의 사적을 소개하는 데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확인한 <八城歌>의 특징적 면모들이 조선 후기 가사문학의 흐름 위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다음 장에서 살피도록 한다.

4. 후기 가사의 흐름과 <八城歌>

장편의 기행가사를 구성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도는 <八城歌>보다 앞서 창작된 조선 후기 가사 작품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1763년(영조39) 통신사행에 종사관 서기로서 참여했던 金仁謙(1707~1772)은 한문 사행록과는 별도로 장편의 기행가사 <日東壯遊歌>를 창작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원거리 여행을 경험하기 어려웠던 당대인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체험과 견문을 상세하게 풀어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궁중에 전해질 정도로 널리 향유되었으며, 서출의 후손으로 충청도 공주의 향촌사족에 불과했던 김인겸은 <日東壯遊歌>의 작가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八城歌> 역시 자국의 인문·자연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당대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국내 명승과 사적을 장편의 기행가사 형식으로 풀어냈다. 작가 나내석이 작품을 두고 ‘曠朗’하다고 자부한 것을 고려하면, 그 역시 거작의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뜻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八域歌>는 <日東壯遊歌>와 같은 기왕의 장편 기행가사와 일면 통하면서도 그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먼저 <八域歌>는 형식 면에서 유명 한시를 원문 그대로 삽입하거나 한문 문장에 우리말 토를 단 문체를 자주 사용하는 등 한문 문학과 친연성을 보인다. 그리하여 4음보 율격에서 자주 이탈함으로써 가사의 형식적 전통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八域歌>는 내용 면에서 작가의 실제 기행 체험에 근거하지 않으며 국토 지리 정보라는 새로운 소재를 다루었다.

이러한 <八域歌>의 개성적 면모는 동시대에 창작된 19세기 향촌사족 가사와 통하는 지점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주지하듯이 19세기 향촌사족 가사 작품은 작품 내에 한시를 삽입하거나, 민요와 같은 다른 문학 장르의 문체를 도입함으로써 전대의 가사 형식과 구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²⁰⁾ 곧 달라진 향촌사회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서 이 시기 향촌사족들은 가사 창작에서도 기존의 詩作 관습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보여준 것이다. <八域歌> 역시 형식 면에서 전대 가사의 전통에서 이탈하는 19세기 향촌사족 가사의 경향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자유롭게 담아내고 있다.

<八域歌>가 작가가 설정한 이상적인 사족상을 대거 소개함으로써, 사족으로서 작가의 정체성을 재확인한 것 역시 19세기 향촌사족 가사 작품이 공유했던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전술했듯이 중앙 정계와 향촌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갔던 향촌사족들은 가사를 통해 그들의 삶의 터전인 향촌을 예찬하거나, 그들이 내면화하고 공유했던 유교 이념을 노래했다.²¹⁾ 이는 당대 향촌사족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이 처한 난국을 타개하려는 문학적 대응이었다. <八域歌> 역시 인물의 사적을 서술하면서 ‘忠勇’, ‘節義’와

20) 윤병용, 「남석하 가사의 특징과 19세기 향촌사족의 시적 지향」, 『古典文學研究』 55, 한국 고전문학회, 2019, 22~28면에서 남석하의 가사 작품을 예로 19세기 향촌사족 가사의 이러한 특성을 지적했다.

21) 안혜진, 「19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에서 18세기 향촌사족이 가사 창작을 통해 향촌사회 변동에 대응한 예를 유형별로 상세하게 고찰했다.

같은 유교적 교훈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 향촌사족이 지은 교훈가사와 친연성을 보인다. 곧 기존 논의에서 당대의 학문적 동향과 관련하여 자리매김 되었던 <八域歌>의 문학사적 위치를 조선 후기 향촌사족 가사의 향유 맥락 위에 재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八域歌>는 유교 이념에 기반한 교훈을 전달하여 향유자를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사족으로서 정체성 실현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역사 속 인물의 사적을 소개하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들의 존재 본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향유자와 공유하고자 했다. 이때 <八域歌>는 당대인에게 널리 읽혔던 국토 지리지의 체계를 빌려오고 당대인의 관심을 끌었던 소재를 동원하는 등, 진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당대인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감행했다. 이처럼 이상과 어긋난 삶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형식 면에서의 새로운 시도에서 동시대에 지어진 여타 실용서나 향촌사족 가사와는 구별되는 <八域歌>의 문학사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5. 결론

<八域歌>가 창작될 무렵 조선에서는 실학이 융성하였으며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국토 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擇里志》를 비롯하여 당대에 편찬된 다수의 지리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동향과 관련하여 <八域歌>의 특징과 의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곧 작품을 당대에 편찬된 실용서와 동일선상에 놓고, 작품이 국토 지리 정보를 다루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 것이다. 하지만 <八域歌>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여타 실용서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19세기 향촌사족이 처했던 사회적 현실에서 비롯된 부정적

심경을 술회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八域歌>가 가진 개성적 면모에 주목하고, 작가적 맥락을 고려하여 후기 가사의 흐름 위에서 작품의 의의를 재평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작품 전반의 특징을 재고하고, 작품에 나타난 작가 나내석의 처지를 살폈다. 선행연구에서는 <八域歌>에 대해 기행가사의 형식을 취해 국토 지리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擇里志》에서 취한 것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八域歌>는 작가의 실제 기행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 아니며, 《擇里志》에 나타나는 비판적 지식인의 시각이 대폭 소거되어 있다는 점에서 <八域歌>만의 개성적 면모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 나내석의 심경 술회 대목을 검토하여, 작가가 출사하지 못한 향촌사족으로서 본인의 처지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 작품을 창작하였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八域歌>가 주요하게 다룬 소재인 명승과 사적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 및 형식상 특징을 분석했다. 먼저 명승의 경우 작가가 실제로 유람한 경험이 없기에 견문이 소략하고, 감상은 다른 문인의 한시를 삽입하여 문학적 형상화의 의지가 약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 비해 사적의 경우 작가가 상상력과 문학적 장치를 적극 동원하여 기존 저술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八域歌>는 특히 사회적 책무를 다한 지도층 인사의 사적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작가적 맥락을 고려할 때 작가는 사족의 사회적 정체성 실현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본인이 꿈꿨던 이상적인 사족상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당대에 편찬된 실용서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八域歌>의 의의를 후기 가사 문학의 흐름 위에서 재평가했다. <八域歌>는 장편의 기행가사를 구성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日東壯遊歌> 등의 조선 후기 장편 기행가사와 통한다. 하지만 형식적 일탈이나 문제의식 면에서 전대 기행가사와는 성격을 달리하며, 당대 향촌사족 가사와 맥을 같

이 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이 사회적 책무를 다한 지도층 인물의 사적에 집중한 것은 향촌사회 변화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서 창작된 이 시기 향촌사족 가사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곧 삶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형식 면의 새로움에서 작품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작품을 구성하는 방대한 분량의 내용 단락들 가운데 작품 전체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판단한 일부 단락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이에 작품의 각 단락이 지닌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八域歌>의 특징과 의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이상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나내석, <八域歌>(노규호, 『論註 八域歌』, 민속원, 1996)
- 이중환, <擇里志>(이중환 지음, 안대회·이승용 외 옮김, 『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
- 강응천 외, 『16세기 성리학 유토피아』, 민음사, 2014
-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7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제4판), 지신산업사, 2005
- 최강현 『韓國紀行文學研究』, 일지사, 1982
- 최두식, 『韓國詠史文學研究』, 태학사, 1987
- 김대중, 「조선 팔도 식화지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7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 나영훈, 「조선 현종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朝鮮時代史學報』 94, 조선시대사학회, 2020
(DOI: 10.21568/CDHA.2020.09.94.197)
- 노규호, 「'八域歌'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 「朝鮮 後期 敎本性 歌辭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박준규, 「八域歌에 대하여」, 『한국어문학』 1, 한국어문학회, 1965
- 안혜진, 「19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윤병용, 「남석하 가사의 특징과 19세기 향촌사족의 시적 지향」, 『古典文學研究』 55, 한국고전문학회, 2019
(DOI: 10.17838/korcla.2019..55.001)

| Abstract |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Palyeokga*

Kim, Dong-kyu

Seoul National Univ, Ph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Palyeokga*, which is distinct from the previous practical books. In the meantime, the relevance of *Palyeokga* to practical books compiled at the time, such as *Taekriji*, has attracted attention. However, the critical perspective of *Taekriji* is greatly reduced in *Palyeokga*, and the negative feelings of the writer Na Nae-seok as a 19th-century local cousin who lost his social position are discussed, so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Palyeokga introduced famous scenic spots and historical sites in various parts of the area in the form of travel lyrics. However, since the speaker's travel in the work is not real, his knowledge of local scenic spots is only a rough description, and his appreciation is replaced by inserting famous Chinese poems. On the other hand, *Palyeokga* made efforts to reconstruct the subject matter literary by mobilizing the artist's imagination and literary devices for local history. In particular, *Palyeokga* devoted a great deal of weight to the private history of the four families who practiced the ethics of loyalty. Considering the life of the artist who had aspirations to realize social identity through shooting, this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pay attention to the ideal representation of the artist's aspiration.

The writer's consciousness of Palyeokga shares the problem consciousness with the lyrics of the Hyangchon clan created as a literary response to the changing reality of Hyangchon society since the 18th century. The artist tried to share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of the nature of their existence through the lyrics. At this time, Palyeokga mobilized the subject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that people of the time would be interested in, and added literary imagination to induce the interest and immersion of the enjoyers. In this serious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reality of life that is contrary to the ideal and the novelty of the form taken to effectively embody it, the literar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Palyeokga can be found, which is distinct from other practical books and lyrics of the Hyangchon clan built at the same time.

Key words : Palyeokga, Na Naeseok, Gasa, Hyangchonsajok, 19th century, Taekrij

[별지] <八域歌> 본사의 세부 소재 선정 현황

*○는 해당 내용을 간략히 언급한 것, ◎는 해당 내용을 문학적 형상화의 의도를 갖고 상세하게 서술한 것을 의미한다.

		지세 생리	명승	사적	비고
함 경 도	(1) 백두산	○		◎	세종-김종서의 君臣際會
	(2) 회령			◎	김종서의 韜略
	(3) 종성			◎	김응하의 大節貞忠(◎ 明天子 詔, 詩)
	(4) 경흥			◎	익조와 天監在下
	(5) 온성· 길주		○		
	(6) 마천· 마운령			◎	유희춘 부인의 德(◎ 詩)
	(7) 북청			◎	이항복·정충신의 知己
	(8) 함흥		○	◎	태종의 氣像
	(9) 영흥		○		
	(10) 덕원	○			
	(11) 안변		◎		석왕사 연기 설화(태조, 무학)
평 안 도	(1) 강계	○			
	(2) 위원			◎	이여송의 自掘自害
	(3) 영변		○		
	(4) 안주		◎		칠불사 연기 설화(◎ 詩)
	(5) 성천		○	○	
	(6) 중화			◎	박엽의 知識과 淸 장수
	(7) 평양	○	◎	◎	연광정과 주지번의 懸판, 단군조선-기자(◎ 頌詩)-위만-고구려 건국 과 멸망(◎ 詩)
황 해 도	(1) 풍천· 은율	○			
	(2) 장연		◎		금사사 인근 풍경
	(3) 해주		○ ◎		신평사 연기 설화
	(4) 문화	○		○	
	(5) 평산	○	○		

		지세 생리	명승	사적	비고
강원도	(1) 안협		○		
	(2) 금강산		◎	◎	금강산 풍경(㉔ 詩), 마의태자의 貞忠大節(㉔ 詩)
	(3) 원주	○		◎	태종과 御留洞(원천석)
	(4) 춘천		◎	◎	흑란암의 이름 유래(㉔ 詩), 예맥국의 고도(㉔ 詩)
	(5) 인제		◎		한계산의 풍경
	(6) 정선	○			
	(7) 영월		○	◎	단종의 지희(㉔ 詩, 노리, 祝文)
	(8) 태백산		◎ ○		강원도의 산과 바다 풍경
경상도	(1) 소백산	○			
	(2) 안동		○		
	(3) 의성		◎	◎	문소루와 김지대의 시 현판, 김지대 가문의 등용(㉔ 詩)
	(4) 순흥		○		
	(5) 대구	○		○	
	(6) 울산			◎	신라 처용의 人君 씨운 曲調 (㉔ 노리, 詩)
	(7) 동래		◎		왜관의 설립 경위와 현황, 정과정과 곡조 (㉔ 詩)
	(8) 고령			○	기묘사화와 신잠의 은거(㉔ 詩)
	(9) 현풍			◎	김굉필의 聖人 면모(㉔ 詩)
	(10) 경주			◎	신라 김후직의 諫(㉔ 詩), 김유신의 英雄豪傑 면모(㉔ 詩), 황창의 춤과 氣像(㉔ 詩), 설씨녀의 貞烈(㉔ 歌), 신라 시조-삼국 통일-문치(설총, 성덕왕, 문 성왕)와 사대(경덕왕, ㉔ 詩)의 예찬
	(11) 낙동강	○			
	(12) 상주	○		○ ◎	견훤의 氣像
	(13) 선산	○		◎	고려 유신 김주의 忠烈陰德
	(14) 봉계촌			◎	고려 유신 길재의 뜻

		지세 생리	명승	사적	비고
경 상 도	(15) 성주	○	○		(㉞ 詩)
	(16) 합천		◎	◎	신라 죽죽의 盟誓,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유래
	(17) 거창			◎	이슬원의 立節, 아들 이우방의 복수
	(18) 삼가			○	
	(19) 안양			◎	정온의 절개
	(20) 진주	○		◎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인물들(㉞ 詩)
	(21) 김해			◎	가야 건국 신화
	(22) 밀양		○	◎	박홍신의 딸 일화(전쟁의 비극)
	(23) 고성			◎	나세찬의 安置와 忠信
	(24) 통영		○		
	(25) 남해		○		
	(26) 노량			◎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수군의 활약 (㉞ 진린의 書)
	(27) 하동		◎		악양동과 고려 한유한의 은거(㉞ 詩), 화개동과 정여창의 시(㉞ 詩), 쌍계사와 최치원의 시(㉞ 詩)
전 라 도	(1) 구만촌	○			
	(2) 구례	○			
	(3) 광양		○		
	(4) 순천			◎	왜교성 전추와 노량해전, 이순신의 활약과 죽음
	(5) 보성		○		
	(6) 홍양		◎	◎	팔영산의 모양, 손죽도 걸진 사건 (임진왜란 발발)
	(7) 장흥		○		
	(8) 강진		○		
	(9) 완도		○		
	(10) 해남		○		기묘사화와 김정희의 시(㉞ 詩) 외
	(11) 제주		◎ ○	◎	탐라국 건국 신화, 유구국 세자의 비극 (㉞ 詩) 한라산의 풍경, 제주 바다와 王靈 외

		지세 생리	명승	사적	비고
전 라 도	(12) 영암		○	○ ◎	최덕지와 사육신의 시(◎ 詩), 신라-唐의 교역과 유학생(◎ 토황소격문)
	(13) 나주	○			
	(14) 장성	○	○		
	(15) 부안	○	○		
	(16) 광주	○		○	*人才의 유형 (道學, 節義, 將帥, 仕宦, 忠勇)
	(17) 창평			○	*화자의 처지에 대한 서술
	(18) 남원	○	◎	◎	광한루 건립과 중수, 대방국의 역사, 임진왜란 당시 남원성 함몰(◎ 詩)
	(19) 지리산	○	◎ ○		달궁, 정령, 황령의 이름 유래
	(20) 운봉			○	
	(21) 무주		○		
	(22) 전주	○	○	◎	후백제 건국과 멸망, 임진왜란 당시 이정란의 忠烈
	(23) 금산			◎	임진왜란 당시 조현의 舍生取義
	(24) 익산			◎	기자 후손의 마한 건국과 승의전 봉양 (◎ 詩)
(25) 상산		◎		백운암 연기 설화	
충 청 도	(1) 강경	○			
	(2) 부여		◎	◎	백제 건국-부여 천도-멸망, 소정방과 조룡대 설화(◎ 詩), 낙화암의 유래(◎ 詩)
	(3) 공주		◎ ○	○	'新都' 이름의 유래, 이괄의 난과 인조의 雙樹, 공북루(◎ 詩)
	(4) 온양			◎	세종과 학사들의 問答 欽仰
	(5) 내포	○			
	(6) 보령		○		
	(7) 청풍		◎ ○		청풍 이름의 유래
	(8) 충주	○		○	

		지세 생리	명승	사적	비고
충청도	(9) 청주			◎ ○	이색, 이승인에 대한 정도전의 폄박 (㉑ 詩-和) 이인좌의 난 당시 남연년, 오명항의 활약, 송 시열의 大義
	(10) 연산		○		
	(11) 천안			◎	정유재란 당시 明將 양호의 원숭이 부대의 활약
	(-) 총평	○			
경기도	(1) 수원			○	정조의 大孝 칭송
	(2) 한양	○	◎	◎	투금강 이름의 유래, 태조와 무학의 도읍지 선정과 天府, 정도전에 대한 부정적 평가
	(3) 광주		◎		남한산성-병자호란 당시 인조 항복과 승병 양성
	(4) 강도			○	병자호란 당시 순절한 인물들(㉒ 詩)
	(5) 용인			◎	정몽주의 忠魂義魂(㉓ 歌)
	(6) 여주			○	세종대왕 장지 이야기
	(7) 금천			◎	고려 유신 서건의 충절(㉔ 詩), 태종의 尊賢聖德(이양중)
	(8) 송도	○		◎	고려 건국 신화, 멸망의 이유, 문치 예찬(광종·쌍기, ㉕ 詩), 송도의 풍수와 고려의 부마국 지위(⇨ 조선 의 정당성, ㉖ 詩), 세종의 송의진 건립과 聖德
계	102	31	50 (23)	58 (45)	-